

홍콩 서구 문화지구 위원회 마이클 린치 대표



마이클 린치 대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키워낸 예술행정 달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영국 사우스뱅크 센터를 세계 굴지의 아트센터로 키워낸 예술행정의 달인이다. 1950년 호주에서 태어난 그는 1973년 호주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을 시작으로 예술행정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대표를 맡아 세계적인 아트센터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 2002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약 7년동안 사우스뱅크센터의 대표로서 로열 페스티벌 홀(Royal Festival Hall)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예술정책과 프로그램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홍콩의 문예부흥 프로젝트 광주와 콘텐츠 교류 하고파”

“난 60살이라는 나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봐라. 난 춤을 출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5월 27일, 홍콩의 서구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이하 WKCD) 위원회 대표로 임명된 마이클 린치(Michael Lynch·62)는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뜸 “건강”을 운운하며 “WKCD를 이끌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콩의 미래가 걸린 서구 문화지구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너무 “올드”(old)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아예 땀댄스 스타까지 밟았다. 마이클 린치가 기자들 앞에서 어색한 댄스실력(?)을 선보인 건 전임자였던 그레햄 셰필드(Graham Sheffield)가 건강상의 이유로 5개월만에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초대 대표를 맡은 시유 쉐엔(Angus Cheng Siu-chuen·전 디즈니 예술감독)은 예산삭감 등을 이

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마도 주체측(홍콩)의 마음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주목을 끌었던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 한몫했다. -WKCD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는? ▲서구 문화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문화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홍콩정부가 WKCD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문화와 예술로 삭막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WKCD의 가치는 19개의 핵심문화시설과 9075평에 달하는 예술교육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구 700만 명의 홍콩은 협소한 면적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함터가 많지 않다. WKCD가 5만 여 평의 녹색광장과 2km의 산책길을 해안가에 조성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마치 알아 홍콩시민들은 이곳에서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과 문화교육을 즐기고 있고 있었던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후광·도심공원 친환경 컨셉 경쟁력 있어 국가간 장르·전통 공유, 완성도 높이는 데 도움”

유료 일주일만에 사표를 던졌다. 거물급 수상들의 잇따른 중도하차로 속앓이를 했던 서구 문화지구 위원회는 실제로 마이클 린치를 영입하기전 건강검진을 실시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난 2011년 5월 초 홍콩 정부의 삼고초려 끝에 WKCD의 구원투수로 낙점된 마이클 린치(전 호주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대표)는 최근 국내 일간지로는 최초로 가진 광주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30여 년 동안 쌓은 예술행정가로서의 노하우로 WKCD를 세계 최고의 복합문화단지로 키우겠다”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당신에게 러브콜을 보낸 도시가 많다고 들었다. 홍콩의 WKCD 대표를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솔직히 말하면 홍콩에겐 단단히 코를 꿰다(웃음). 지난 2009년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 대표를 맡고 있을 때 홍콩정부가 주최한 WKCD 정책포럼에 초청을 받았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행정가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대부분이 WKCD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달랐다. 뉴욕이나 런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홍콩이 지닌 잠재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후광과 도심안의 공원(City Park)을 내건 친환경컨셉 등은 질만 뛰어나지 않아서 ‘작

-WKCD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스케일과 ‘아시아 문화허브’를 내건 야망을 어떻게 충실히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초기에는 약 3조원(216억 홍콩달러) 정도 추정됐는데 투자부담이 늘어나면서 3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광주에서도 WKCD와 유사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잘 알고 있다. 광주는 매우 매력적인 문화도시라고 들었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권위있는 비엔날레일 뿐 아니라 도시의 문화지평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세계 미술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015년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교류할 생각은 있나? ▲물론이다. 우리는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예술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연해나갈 생각이다. 지역이나 국경을 초월해 서로의 다양한 예술장르와 전통들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 것은 두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박진현 문화전문기자 jhpark@kwangju.co.kr

서구 문화지구 프로젝트는

도심 복판 12만평에 예술단지 조성 홍콩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홍콩 서구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이하 WKCD) 프로젝트는 광복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다. ‘아시아의 문화허브’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지난 98년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이 국책사업은 홍콩의 야심을 말해주듯 부지가 40ha(12만 평), 공사비만 3조원(홍콩216억 달러)에 이른다. 규모로 치자면 2013년 3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다. 홍콩의 명품인 빅토리아 항구를 바라 보고 있는 이 복합문화예술단지에는 오는 2015년 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갖춘 17개의 문화인프라와 부대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먼저 2015년에는 M+미술관(1만6180평), 다목적 대공연장(1만5000석), 시취 중국오페라극장(Xiqu·1400석) 뮤지컬 전용관(800석), 콘서트홀(클래식 전용·2000석), 현대 무용 전용홀(2200석), 4개의 블랙박스 극장(신진작가들의 실험극 전용) 등 18개의 문화인프라(제1단계)가 들어선다. 여기에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업그레йд된 공연장(제2단계)과 시각예술박물관, 오페라, 아파트단지, 쇼룸, 주차장, 부대시설 등(제3단계)이 건립되면 30여 년에 걸친 WKCD의 대장정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박진현 문화전문기자 jhpark@kwangju.co.kr



서구 문화지구 프로젝트 조감도

무궁무진 시각예술의 세계로

‘세계팝업아트전’ 31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팝업아트(Pop-Up art) 작가 벤자 하니(Benja Hamey)와 에르메스, 샤넬, 루이까또즈 등 명품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세계팝업아트전’이 오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다. 루이까또즈가 협찬하고 주한호주 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세계팝업아트전은 국내 최초로 팝업기법이 접목된 작품을 소개하고 3차원 시각 예술인 팝업아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명하는 자리다. 벤자 하니는 고급 팝업북과 감각적인 페이퍼 건축 조형작업을 선보인 작가로, 이번 루이까또즈와의 콜라보레이션뿐 아니라 에르메스, 패션매거진 바자, 호주 패션위크 등 패션분야, 광고, 잡지 일러스트까지 다



벤자 하니 작 '무제'

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폭넓게 작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루이까또즈는 다양한 팝업러의 가방들이 모일처럼 엮인 팝업구조물을 전시기간 동안 전 매장에 설치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색다른 보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02-730-4360, www.artcenterida.com /김진경기자 kzi@

Advertisement for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Korea's Representative Korean Language Foreign Language Series). The ad features a large title, a '2012 DAENEUNG's Best Seller' award logo, and several book covers including '한자능력검정시험'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and '한자능력검정'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eries. It also mentions '한자능력검정' series and '한자능력검정' series.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대표전화: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d the Daeneung Education website: www.daeneungedu.com.